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율리아니와 성 바울로 사도

마태오 제8주일

성 니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제7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응송 구세주 변모 축일 / 178, B 181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구세주 변모 축일 입당송 / 178, B 181
- 구세주 변모 축일 찬양송 / 178, B 181
- 성당 찬양송
- 구세주 변모 축일 시기송 / 178, B 183
- 사도경: 고린토 전 1,10-17 / 봉독서 183
- 복음경: 마태오 14,14-22 / 112, B 4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바울로와 성 율리아니 순교자

우리 교회는 8월 17일에 성 바울로와 성 율리아니 순교자 남매(3세기)의 축일을 기념합니다. 성인들께서는 영적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피로 순교의 왕관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같은 믿음과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상황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예를 드시면서 예언자들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태어난 처음으로 소속되는 사회이며 가족 구성원과의 화목은 사회 생활의 첫 번째 규범입니다. 이렇듯 가족 구성원들이 화합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받고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생각과 소망을 둔다면, 그런 가정은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산실이 됩니다. “이대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시편 133:1)이라는 시편 구절만큼 이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또 있을까요?

주님께 맡기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이들 중에는 형편에 따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 대부분 자기 먹을 것조차 챙길 형편이 못 되는 빈곤한 이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 펼쳐집니다. 원래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 보통 자기가 먹을 것을 챙겨서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지역 대부분이 광야였고 언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을 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굶지 않으려면 먹거리만큼은 꼭 가지고 다녀야 했죠.

이날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듣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마태오 14,15)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을 보낼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14,16)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더 현실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인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겨우 구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같은 내용에 의하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자기 먹거리를 전부 내놓은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잘것없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을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할 때 주님의 역사를 통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지면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필요를 채워 주신단 말이지요. 주님께 바쳐진 것은 무엇이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말이지요.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작게 취급합니다. 아니 변명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적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누어 주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그 이상의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나누며 사는 사람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성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마태오 10,42)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눔은 희생으로 시작되지만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소수의 선택된 자를 위한 것이 아닌...

성인의 품성은 소수의 선택된 자만을 위해 예비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적 거룩함의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개화(開花)이다.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사실 신약성경에서 ‘성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오 5:48)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로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일깨워 주고 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테살로니카 I 4,3) 성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6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보제였던 콘스탄티노스는 ‘모든 성인들의 주일’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였다. “교회는 온 세상에서 탄생하는 불멸의 꽃(성인)들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는데, 이 꽃들은 성령이 흐르는 시내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생기를 얻는 토양으로부터 생겨난다.”

▶ 아타나시아



주님과 모든 성인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성모 안식 축일을 맞이하는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일라리온 신부님을 비롯하여 모든 신자분들이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성당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초, 중등부 여름 영어 캠프 수련회

지난 7월 29일 ~ 8월 4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초, 중등부 여름 영어 캠프 수련회가 하느님의 축복과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예배 때 ‘주여,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구절씩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영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 재밌는 게임과 운동, 수영 등을 통해 야외 활동을 하면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고, 장기 자랑, 오락 등을 통해 서로 친교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전주, 울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들, 자원 봉사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60명 이상이 정교회의 신앙 안에서 생활하며 영적으로 배우고 친교를 나눴

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을 중심으로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크리스토퍼 무어 신부, 총책임자로 요한 박인곤 보제가 함께 했고, 엘레니 조혜원 교우와 야고보 명제규 교우가 수련회의 부책임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영어 선생님으로는 크리스토퍼 신부, 포티니 사모, Panayiotis Kousoulas, Andreas Chamalis, Christopher Jonker, Stavrin Digeni, Eric Ambrosius께서 수고해 주셨고, 스텝으로 서요한, 크리스티나 조혜린, 갈리나 정윤희, 논나 권새롬, 안젤라 이나영, 박기쁨, 문정화께서 도움을 주셨고, 주방 봉사자로 아나스타시아 박혜경 사모, 테오도티 이정아 사모, 릴리아 사모, 바실리오스 이성일, 베로니카 박인애, 카테리나 배선주, 이리니 최은정, 에프티미아 박수희, 요안나 김미옥, 나탈리아께서 매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도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간 예식 . 8월 15일(목) ▷ 성모 안식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이어서 광복절 영광식

성모 안식

